뒤를 본 후 앞을 보자

- 질병관리에 만전 기하고 희망찬 새해 준비하길... -

보내기 싫다고 아니가는 세월이 아니고 빨리 오라고 외친다고 달음질쳐 오는 세월이 아니다.

우리의 양록업은 현재의 이 암담한 현실에서 빨리 벗어나고픈 것이 공동의 바램이다. 그렇다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좋으리라 장담도 할 수 없다. 그렇다보니 새해에 대한 양록경영계획도 온통 어두운 색깔의 추상들만 가득하다. 그러하니 새해를 빨리 오라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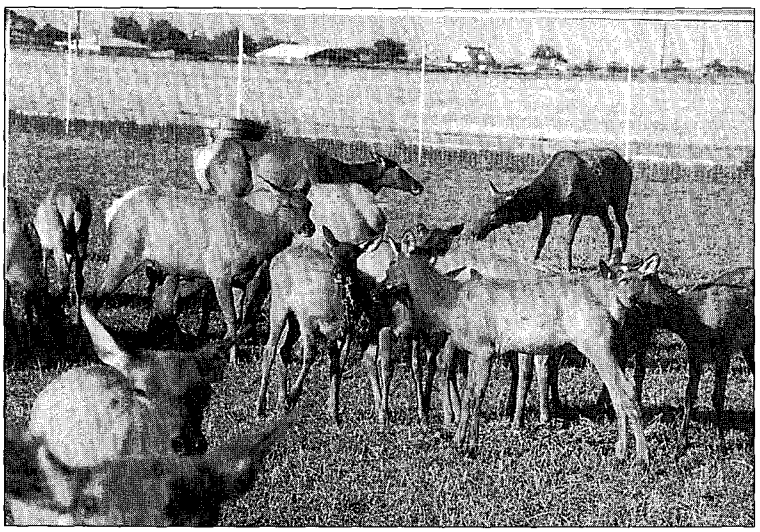
유 일 준 수의사
〈유일동물병원장〉

필자가 최초 엘크 어미암사슴을 사들일 때의 값은 1,800만원이였는데 현재 그 가격은 몇십배가 떨어져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이 어둡다고 할 일이 없는 것도 아니다. 녹용소비 증대 방안, 새로운 녹육가공처리로 우리 입맛에 맞는 요리 창안, 양질의 녹용생산증대 방안, 녹용관련 상품의 가능성 확인을 위한 연구단체에 대한 자금지원 방안, 사슴사육사양표준을 만들기 위한 학술단체의 육성 그리고 사슴도축에 관한 법령대처 방안 등등.

이런 것을 지체없이 수행해야 하지만 지금 현재의 재정을 가지고는 할 수도, 해볼 수도 없으므로 바보가 되어 오직 순수함만으로 사슴 키우는 이들이 융합해야만 한다. 순수한 융합만이 사슴 키우는 이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외줄인 듯 하다.

속이는 것과 못믿게하는 요소부터 제거하면서 첫발을 내디딘 사슴에 대한 사랑과 살아남기 위한 원초적인 갈망을 마음에 모아 백지 위에 채워야 한다. 내일의 참된 삶을 위해 어제까지의 흠들을 덮어두고 서로 용서하되 그 많은 흠을 잊지는 말자. 자만하지도 말아야 한다. 필자부터 겸손해지고 인간적인 순수함과 참을 키우면서 현실에 임하고 공익을 위한 연구도 하렵니다. 이래야만 앞에 펼쳐진 새 천년을 후회없이 함께 헤쳐갈 수 있다고 하겠다.

사슴관련 산물 생산자는 소비자를 내 몸처럼 생각하고 유통관련자는 생산자를 가족처럼 아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하면 불신과 불만이 잉태하여 공멸이라는 공적을 출산할



▲ 좀더 나은 내일을 위해 사슴을 사랑하고 서로를 감싸주는 미덕을 발휘하자

것이다.

어려웠던 지난해는 올해가 되면 나아지겠지 했건만 올해는 작년만도 못하고, 내년이 가까이 와 있는 지금 내년에 기대할 것도 없다고 할 수밖에 없지만 참된 마음을 무기삼아 용기 있게 내년을 맞이해야겠다. 이것이 위기에서 벗어나는, 한방에 해결하는 승리로의 길 일수 있기 때문임을 믿는다.

충남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병명미상의 질병은 9월과 10월 내내 기승을 부린 후 11월 중순 이후는 잠잠해 졌다. 되짚어 보면 엘크 숫사슴과 일부 레드 숫사슴에서 발생했던 이 질병은 예년에는 거의 경험해 보지 못한 것이었다.

증상은 식욕부진에 이은 식욕절폐, 체온상승, 앞다리 파행에 이은 네다리 파행. 그 후 기립곤란과 기립불능 후 폐사되는 결과를 3~5일 사이에 보였다. 설사 또는 배변정지 그리고 호흡곤란이 꼭 나타나기도 했다. 그러나 병원체가 규명되지 아니하여 병명은 알 수가 없었고 정확한 치료방법도 알 수 없었지만 대증요법과 경험요법을 통하여 질병의 초기와 중기에는 "엔로후록사신"제제 "썰파디메칠피리미딘"제제, "해열진통소염"제제, "다량의 수액"제제로 치료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질병의 경과가 급성이어서 신속한 치료가 필요했으며, 최소한의 스트레스만이 주어지는 진료가 필수적이었다. 다시 말해 극심한 스트레스가 주어지면 그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폐사되기 일쑤였고 치료를 위한 포획을 목적으로 마취를 취하면 그 또한 결과가 거의 부정적이었다.

한편 사슴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사육 의지하락은 질병상태의 사슴을 방치하는 바람에 폐사된 사슴숫자 또한 적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많은 사육자들이 다소의 금액이나마 건지기 위해 질병원인규명을 위한 병성감정으로 포기하고 중탕용으로, 또는 사슴고기 취급자들에게 넘겨져 많은 아쉬움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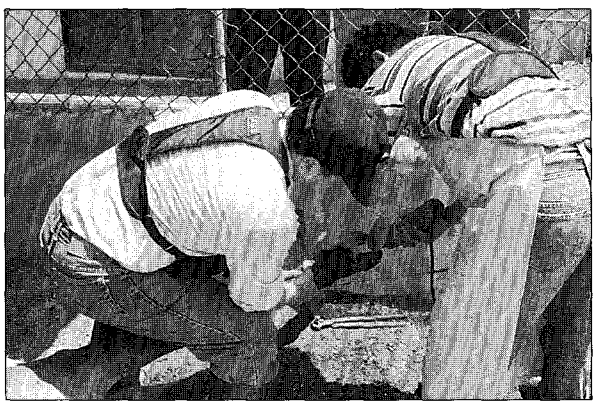
10월 중순경부터는 꽃사슴에서의 본병 발생이 산발적으로 발생하였고 12월 중순까지

발생이 이어졌으나 12월 하순부터는 필자에게 알려진 것은 없었다.

꽃사슴의 치료도 엘크와 마찬가지였고 대동소이했다. 특기할만한 것은 엘크, 레드디어, 꽃사슴을 통틀어 "썰파디메칠피리미딘"의 예방효과는 절대적이라 할 수 있었다. 수많은 농가에서 효능이 입증되었다. 정말로 썰파디메칠피리미딘의 효능 발견은 불행중 얻어진 다행이었다.

최근의 진료는 주로 발굽질병과 비뇨기질병 중 요석증에 기인된 질병이었고 그밖에 폐렴과 대사성 질병이 있었다.

발굽질병 발생의 환경을 살펴보면 운동장이 흙바닥인 경우가 콘크리트로 된 좁은 우리보다 발생률이 적고 증상도 경미하였으며 자연 치유율도 높았다. 특히 자록 성장시기에 질퍽한 환경에서 자란 경우에 그 발생률이 크게 높았는데 이는 자록 육성시기의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웅변하는 대목이다.



▲ 그라인더를 사용, 발굽을 손질하는 모습

실예로 좁은 공간에서, 그리고 질퍽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엘크 자록 20여두를 상대로 조사해본 결과, 활동에는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하는 개체를 마취하여 조사한 바 발굽에 염증이 있는 것이 7두, 발굽이 변형된 것이 4두, 발굽에 염증이 있었으나 치유되었거나 치유되는 것이 3두였으니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필자의 목장에서 사육중인 엘크자록 15두를 검사한 바에서도 7두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후 치료를 3회에 걸쳐 시행하였다. 발굽질환은 환경자체를 건조하게 해주며 스트레스를 줄여주면서 적절한 치료제로서 항생제, 유산동, 니트로 후라존 등을 써주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을 하든가 나무발굽을 특수접착제로 신겨주는 것이 필요하며 장기간의 치료가 요구됨을 인지해야 한다. 불완전한 치료나 방치는 다음해에 재발됨이 확률적으로 높다.

해마다 겨울철과 봄철에 나타나는 요석증은 음수부족, 수질불량이 신장기능 저하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질병인데 요석에 의해 요도가 심한 통증을 느끼게 됨으로써 후구에 자주 힘을 주며 때로는 암사슴의 분만전기 때처럼 힘을 주기도 한다. 소량의 배뇨가 지속되고 식욕이 부진하며 운동도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 요석증은 때대로 포피염과도 연계되어 포피부위가 부어오르기도 한다.

요석증의 치료는 "염화암모늄", "비타

▲ 제각기를 사용, 발톱을 손질하는 모습

민 A, D, E", "소염진통제", "강심이뇨제"와 대증요법이 그 방법이다.

요석증은 낙각기에는 포피염과 연계되기도 하여 낙각 후 식욕부진을 일으켜 녹용성장이 부진하게 되며 때로는 포피가 유착되어 배뇨가 곤란, 수술로 처치되어야 할 때도 있다. 요석증의 예방은 우선 수질개선이 되어야 하지만, 요석증이 발병된 사슴농가는 나머지 사슴도 요석증이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므로 "염화암모늄"을 3회 정도 음수에 용해하여 투여해 주는 것이 요망된다. 음수 투여시에 설탕을 첨가해주면 음수량을 높일 수 있다.

나이 먹은 엘크 숫사슴과 레드디어는 2월 중순 이후부터 낙각이 예상되므로 지금 시점부터 영양수준을 높여주어야 생산성이 높아지고 양질의 녹용생산에 도움이 된다. 영양수준을 높여준다함은 단백질 수준, 즉 아미노산 수준과 에너지원을 높여주며, 대사작용에 기여하는 비타민과 미량광물질이 적당히 제공되어야 한다.

단백질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 흔히 콩을 추가로 먹여주는 것이 상례이나 열처리되지 아니한 콩류는 콩속에 들어있는 항트립신인자에 의해 피해를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신장기능이 불량한 사슴은 포피염을 일으키기 쉬우며 그로 인해 피해가 예상된다.

실제로 사슴농가에서 단백질 수준을 높여주기 위해서는 대두박을 사슴에게 급여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 하지만 가격이 비싼 게 흠이다. 그러나 제반사항을 고려한다면 열처리된 대두박의 선택이 최선의 방법일 것이다.

새해에 귀 양록농가의 번성함과 안녕을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가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필자연락처 : 011-423-5297〉